



## 박나래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박나래는 요즘 가장 핫한 '대세' 개그맨이다. 별다른 준비 없이 단번에 kbs 공채 개그맨에 합격했지만 이후 무명에 가까웠던 10년이란 시간을 버텨야 했던 그녀. 하지만 물리도록 삼각김밥만 먹던 때에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즐기는 것만은 포기하지 않았던 그녀는 덕분에 분방한 개성과 만만찮은 내공을 체화했다. 박나래는 앞으로 보여줄 것이 훨씬 많은 개그맨! 확실히 지금은 박나래의 시작점이지 전성기는 아니다.

〈라디오 스타〉 출연 이후 어마어마한 화제를 불러 오셨어요. 데뷔 10년차 개그맨으로서 방송 이후의 폭발적 반응에 대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일단 아직까지도 실감이 나지 않아요. 마치 술 덜 깬 다음 날 같달까요. 기분도 좋고 신나서 늘 파이팅이 넘치는데 이게 꿈같아서 조금 무섭기도 해요. 점쟁이가 서른네 살에 대박 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몇 년 남았으니까 꼭 달려 보죠 뭐, 우하하.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장도연 씨와 함께했던 모델 연기도 인상 깊었고요. 최근에는 토크쇼·코미디쇼·버라이어티 프로그램 등 출연하시는 것마다 다 뽕뽕 터지는데, 가장 애착이 가는 활동은 뭔지 궁금해요.

'패션 넘버 파이브'도 제가 무척 좋아하는 코너지만 코너지만, 최근 1년 반을 연기했던 〈코미디 빅리그〉 '쌈 앤 쌈'의 '나래 씨' 캐릭터에 가장 애착이 가요. 한 코너를 그렇게 오래 한 것도 처음이고 1등한 것도 처음이었어요. '나래 씨' 연기하면서 온갖



역할을 다 맡아보고 커플 아닌 듯한 커플 연기도 하면서 참 재미지게 연기한 것 같아요.

〈코미디 빅리그〉의 '중고 앤 나라'와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는 독보적인 분장 개그를 보여주는데요. 분장 개그를 선보이는 이유가 있다면?

일단 등장했을 때 관객 반응이 장난이 아니에요. 분장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에 따라 관객들의 호응 데시벨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분장을 통해서 마동석도 되어 보고 차승원도 돼 보고 평소에 상상만 했던 것을 현실로 직접 실현해 보는 것도 재미있고요. 사실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편이라 분장을 하며 피부가 많이 상했어요. 대머리 분장을 지을 때 비닐을 벗기려면 석유를 바르고 10분을 기다려야 하고 눈 위의 테이프를 떼는 것도 너무 아프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평범한 화장을 하고 무대에 올라가면 민낯인 것처럼 스스로 어색해요.

어릴 때부터 연기자를 꿈꾸셨다고요. 정극 연기와 비교해서 개그 연기의 매력은 뭔가요?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낼 수 있는 거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애드립을 하면서 상대방과 주고받는 긴장감이 아주 짜릿하죠. 무엇보다 내가 대본을 짜고 연출하고 소품과 음악까지 모든 걸 준비하고 연기한다는 것이 참 멋진 작업 아닌가요? 멋진 무대를 만들기 위해 평소에 만화나 영화, 예능 프로그램을 많이 봐요. 그렇게 아이디어를 쌓아 놓다가 아이디어를 뽑아낼 때가 오면 요즘 트렌드 중 핫한 것을 체크하죠.

앞으로 꼭 도전해보고 싶은 개그가 있다면요? 그리고 당신의 최종적인 꿈은?

우아한 사모님 같이 고급스러운 캐릭터를 꼭 해보고 싶어요. 대중들에게는 변함없이 유쾌하고 즐거운, 그러면서도 조금은 아슬아슬하고 남들이 못하는 것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고요.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은 늘 같습니다. "멋진 여자로 살자!" 예요. 솔직함, 유쾌함, 정(情)! 이게 '인간 박나래' 매력의 삼대장 아닌가 싶어요, 푸하하. 지금처럼 내 인생을 즐기며 재미있게 살면 내가 꿈꾸는 멋진 여자, 될 수 있겠죠? ♡

## ! Bonus 질문

2015년 마지막 날, '나래 바'에 가장 초대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지금껏 만난 사람 중 가장 웃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개그우먼 신기루

방송 외 시간에 즐기는 취미생활은?

디제잉

맘에 드는 남자를 유혹하는 나만의 비법?

거침없는 도전과 빠른 포기

kt cs 사우분들에게 한 마디!

섹시하게 사세요~

